

##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 동작구 현장간담회 개최

-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서울 동작구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화)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정구영 (044-202-3891)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관리사업부	책임자	부 장	서지혜 (02-3706-0550)
		담당자	사후대응팀장	권희연 (02-3706-0561)



**붙임 1****간담회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14:00~16:00
- (장소) 동작구청(신청사) 4층 소회의실1
- (내용)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방안 논의
- (참석자)
  -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이구상 사업운영본부장
  - (서울시) 서울광역자살예방센터
  - (동작구) 권순기 부구청장, 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지역사회 의·약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30개 기관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05 (5분)	《참석자 소개》
14:05-14:15 (10분)	《인사말》 · 동작구 부구청장,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14:15-14:45 (30분)	《발제》 ·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방안
14:45-15:45 (60분)	《토론》 · 관계 기관(단체) 토론-조별토론 · 공동 대응계획 도출 및 쉬는시간
15:45-15:55 (10분)	《참석자 활동 선언》
15:55-16:00 (5분)	《마무리》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고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http://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2. 참고로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등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SNS 기반의 자살예방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개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QR코드를 통해 종이 없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연결되며,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